

광주시 민선5기 1년 조직개편·업무조정

## 시장 지시 줄이고 실국 재량권 확대

일부 업무 통폐합...홍보·정무기능 보강

광주시가 민선 5기 1년을 맞아 조직 내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 아래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조직 내에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중심의 하향식 지시 위주로 정책 및 사업이 결정된다는 조직 내 의사소통 부재, 일부 부서 업무중심 심화, 재량권 및 책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시정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선 5기의 방향성이 정립된 만큼 앞으로 일선 직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역량 극대화를 통해 ‘상향식 창조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가운데 광주시장의 판단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장은태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민선 5기 1년이 지난 만큼 철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분배하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량을 대폭 축소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없애기, 불필요한 위원회 철폐,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회의 수시 개최, 명확한 의사전달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부조직 문제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선 대책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문제점을 안고 있

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일부 부서에 업무가 폭주하면서 하방인 인사를 앞두고 각 실과에서 무려 100여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과도한 업무량을 피하기 위해 6명 정원인 여수엑스포 지원 직원 모집에 수십여 명의 신청이 쇄도하는 등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장 시장은 이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다”며 “국실장들은 가능한 보고서 대신 수첩에 적어 구두로 보고하고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의 지시를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대외·홍보·정무기능 보강, 외부 인사 청탁 배제 및 적재적소 배치, 야간·휴일근무 최소화, 국실장 재량권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장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조직 진단을 통해 부서간 업무 격차 해소, 일부 부서 업무통폐합, 수요에 따른 인력보강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공직기강 해이 등과 관련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15명으로 감축반 5개 반을 구성해 분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석패율제 도입 호남의석 확보”

한나라 당권주자 7명 표심 잡기  
광주·전남북·제주 비전발표회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7명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비전발표회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통한 호남 인물 등용 등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관련기사 4면> 첫 연설자로 나선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뒤 한나라당이 호남에 다가가기 시작하고,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박 전 대표가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친박(친박근혜)계 대표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남경필 후보는 “한나라당 전직 지도부가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30%까

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호남을 잘 대우하겠다는 지도부도 시·도당을 사고 지구당으로 규정하고 10개월째 위원장 자리를 비워 놓았다”라며 “당 대표가 되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호남출신 인사들이 자력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후보는 “석패율 제도를 제대로 도입해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탄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한나라당 불모지에서 봉사해 온 호남 당원들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후보 역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패

배하긴 했지만, 후보들이 두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 등 선전했다”라며 “이제는 한나라당이 화답해야 하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전남·전북 지역에 석패율 후보를 2명씩 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는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 지역을 방문해 호남의 마음을 여는데 앞장서는 등 호남부터 확실하게 챙기겠다”면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호남대표 의석 6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면 후보자가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출마하는 독일식으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박진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푸른 깃발을 반드시 호남에서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비전발표회에 앞서 한나라당 정운천 전 최고위원과 박재순·정용화 위원 등 호남발전 특별위원들은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장벽을 깨기 위해서 석패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한나라 유세 열기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 비전발표회’에 앞서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북과 팽파리 등을 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도서벽지 10년 근무 전임 교사 연내 선발 배치”

취임 1주년 맞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전남도교육청이 이르문 올말께 도서벽지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형태의 ‘한지형(限地形) 교사’를 선발·배치한다. <인터뷰 5면> 취임 1주년을 앞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남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지형 교사 선발 등 우수교원 확보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서 도서벽지 교육여건 확충을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법제화가 늦춰지면 내년부터라도 독자적으로 우수교사 선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교사의 직접채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담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간접채벌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간접채벌의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전교조 등과 선을 그었다.

장 교육감은 고교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통폐합은 없다”면서도 “2020년까지 전남 학생수가 30% 가량 줄고 현재도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상태에서 지역민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대응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등록금·FTA 이견만 확인

나대통령-孫대표 영수회담 성과없이 끝나

3년 만에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민생 현안과 관련,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거나 원론적인 대책을 합의하는데 그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 등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관계부처 종합대책 등 6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합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의명동독군산 Dream-Hub GUNSAN  
풍요·인화·꿈결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 2011 welcome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2011.7.4~8.15(43일간)

신선들이 즐기던 아름다운 섬으로 초대합니다

http://tour.gunsan.go.kr

군산시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초촌동 888)  
Tel.063)450-6598 Fax.063)450-4439